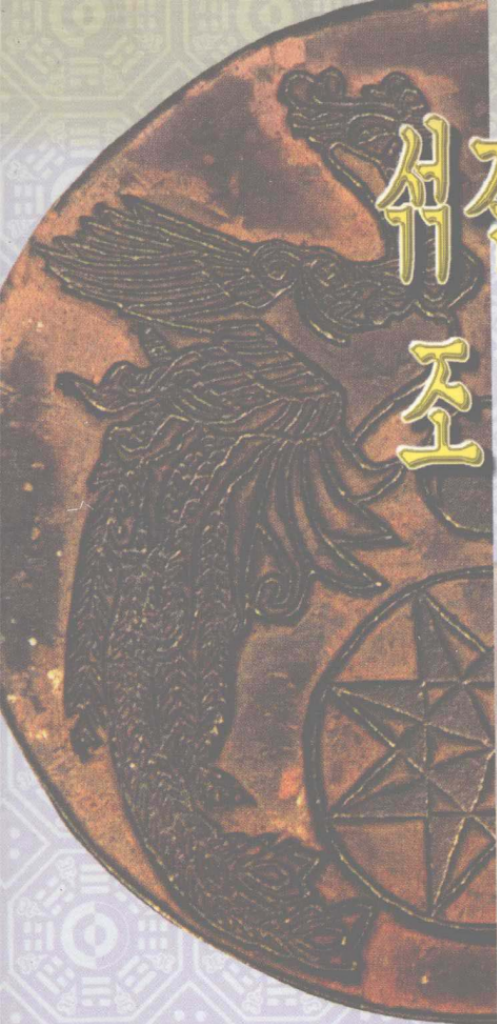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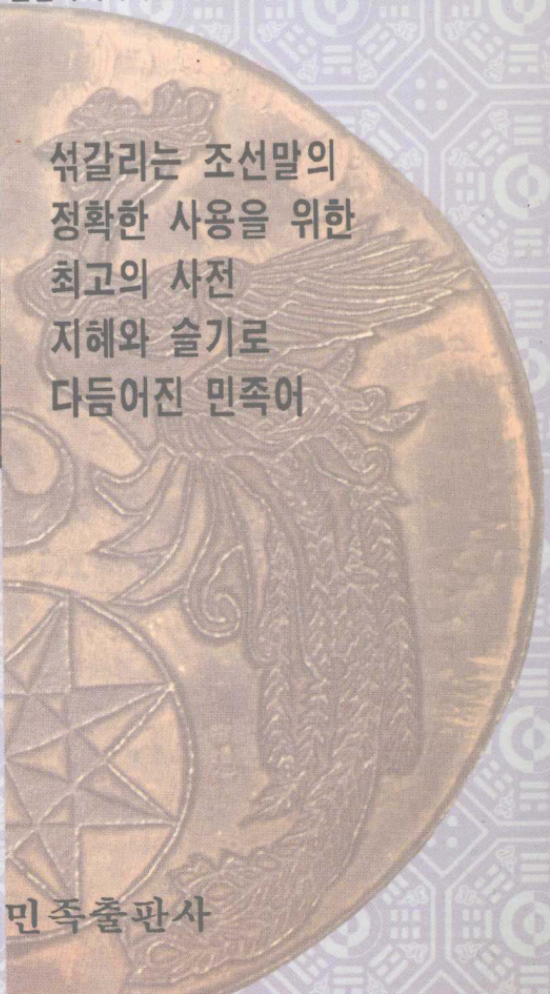




섞갈리기 쉬운 조선말 사전

연변사회과학원 언어연구소 사전실 편찬



섞갈리는 조선말의
정확한 사용을 위한
최고의 사전
지혜와 슬기로
다듬어진 민족어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ISBN 7-5389-0816-1



9 787538 908169 >

ISBN7-5389-0816-1

H·24(民文) 定价: 23.00 元

섞갈리기 쉬운 조선말 사전

연변사회과학원 언어연구소
사전실 편찬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责任编辑:林永万 林承焕

责任校对:金凤莲

封面设计:咸成镐

朝鲜语易错词词典

(朝鲜文)

延边社会科学学院

语言研究所辞典编纂室 编

※

黑龙江朝鲜民族出版社出版

牡丹江书刊印刷厂印刷

新华书店延边发行所发行

开本 850×1168 毫米 1/32·16.25 印张·480 千字

1999 年 4 月第 1 版 1999 年 4 月第 1 次印刷

印数:1——3150 册

ISBN 7-5389-0816-1/H·24

(民文) 定价:23.00 元

편찬성원

책임편찬: 최경남

**편 찬 자: 전명길
리영순**

머리말

우리 민족의 창조적지혜와 슬기로 다듬어지고 발전하여온 우리 말은 의미구조와 문법구조가 치밀하게 짜인 자랑스러운 민족어이다.

우리 말의 뜻을 정확히 알고 정확히 사용하며 표준어와 비표준어를 식별하여 정확히 사용해야만 우리 말은 교제적기능을 충분히 발휘할수 있다.

지금 우리의 언어생활에 뜻이 서로 다른 말들이 서로 섞갈려쓰이거나 표준어와 비표준어가 서로 섞갈려쓰이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있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리의 말을 정확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섞갈리기 쉬운 말 1만 2천여개를 올림말로 잡고 정확한 사용에 도움을 주고저 이 사전을 편찬하였다.

이 사전의 올림말, 뜻풀이, 규범 등은 우리가 편찬한 《조선말 사전》에 준하였다.

우리의 수준의 제한으로 하여 여러면의 부족점과 결함이 있으리라고 믿으면서 독자 여러분의 기탄없는 지적과 조언이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연변사회과학원 언어연구소 사전실

1998년 7월 18일

일러두기

1. 올림말원칙:

① 맞춤법이 비슷하거나 발음이 같거나 비슷하여 서로 섞갈려쓰이는 말을 올림말로 골라잡았다.

례: 가르치다—가리키다	노력—로력
다리다—달이다	련습—연습
봉오리—봉우리	섬기다—생기다
젓—젓	홀치다—홀이다
—던지— —든지	—로서— —로써

② 뜻을 식별하지 못하여 서로 섞갈려쓰이는 말을 올림말로 골라잡았다.

례: 가대기—쟁기	각색—개편
동행—배동	렬거—배렬
벗기다—배끼다	빌다—꾸다
푸성귀—풋나물	효를—효익
뽕—뽕	우—웃—

③ 방언, 비표준어가 표준어로 인상되면서 대응되던 표준어와 뜻이 달라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원래의 표준어와 서로 섞갈려

쓰이는 말을 올림말로 골라잡았다.

례:가는비—가랑비	가득있—가랑있
물담—비오리	배증—설사
삭풍—살풍	종달음—줄달음
통송곳—흙송곳	풀섞—풀쑥
꽃판—꽃잎	올바르다—옳바르다

④ 방언과 표준어, 비표준어와 표준어가 서로 섞갈려쓰이는 말을 올림말로 골라잡았다.

례:가랴다→가렵다	가주런히→가지런히
나룬하다→나른하다	달디랴다→달달하다
모상판→모자리판	반지뿌르다→반지빠르다
솜복→솜옷	초두부→순두부
푸지근하다→푸짐하다	안가마→속가마

⑤ 맞춤법과 표준어가 바뀐 다음에도 원말과 바뀐말이 서로 섞갈려쓰이는 말을 올림말로 골라잡았다.

례:가물더위→가물더위	나부랑이→나부랭이
둑→뚝	룩두→눅두
마무르다→마무리다	수머죽하다→수머죽하다
자지빛→자주빛	초인사→첫인사
팔심→팔힘	쓸까스르다→씨까스르다

⑥ 규범된 말과 비규범된 말이 서로 섞갈려쓰이는 말을 올림말로 골라잡았다.

레:가배→배가	담량→담력
례당→강당	문물→문화유물
발간사→창간사	성시→도시
자호감→자부심	퇴오→제대
평비→평의	협수→검수

⑦ 이외의 경우에 나타난 서로 섞갈려쓰이는 말도 올림말로 골라잡았다.

2. 뜻풀이원칙:

① 뜻풀이는 섞갈려쓰이는 말과 관련되는 뜻만 주었다.

② 뜻풀이는 되도록 간명하고 이해하기 쉽게 주었다.

③ 뜻을 식별하지 못하여 서로 섞갈려쓰이는 말은 한쪽에만 뜻풀이를 주고 그뒤에 《◇》로 대응되는 섞갈려쓰이는 말을 알려 주었고 대응되는쪽에는 《⇒》를 하여 뜻풀이가 있는 올림말에 보내주었다.

④ 표준어와 비표준어를 식별하지 못하여 섞갈려쓰이는 말은 표준어에 뜻풀이를 주고 그뒤에 《×》로 대응되어 섞갈려쓰이는 비표준어를 알려주었다.

⑤ 비표준어는 《→》로 표준어에 연계지어주었다.

3. 용례원칙:

① 올림말의 뜻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용례를 달아주었다.

② 섞갈리기 쉬운 말을 가려잡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 용례를 달아주었다.

③ 용례는 알기 쉽고 간명하게 주었다.

4. 문법적특성의 표시:

① 올림말에 품사소속과 형태소속을 밝혔다.

② 《하다, 되다》가 붙어서 파생된 동사는 어근적단어밑에 파생시키는 형식으로 올리였다.

5. 부호들:

⇒ 뜻풀이가 있는쪽에 런계를 맺어주는 경우에.

→ 표준말에 런계를 맺어주는 경우에.

◇ 쉬갈리는 말에 런계를 맺어주는 경우에.

× 비표준말을 알려주는 경우에.

|| 레구앞에.

| 레문앞에.

~ 레구, 레문에서 올림말과 형태가 같은것을 나타내는 경우에.

가

가볍다 →가볍다.

가공여량 →가공여유.

가공여유 【명】 소재로 부분품을 만들 때 앞으로 깎아여나갈것을 예견하여 제품보다 크게 한 주물품의 여유부분. ×가공여량.

가구장이 →가구쟁이.

가구쟁이 【명】 《가구를 만드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을 알잡아 이르는 말. ×가구장이.

가급전보 →지급전보.

가계표 →가제표.

가계표 【명】 한집안의 가족관계를 나타내는 일람표. ×가제표.

가난하다 【형】 살림살이가 쪼들려 살아가기가 어렵다. ㉡ 가난한 살림살이. ◇구차하다. 빈궁하다.

◇구차하다 【형】 (생활이) 매우 가난하다. |생활이 구차하여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다.

◇빈궁하다 【형】 먹고 살아가기가 어렵게 가난하고 구차하다. |해방전 이 마을 농민들의 생활은 극도로 빈궁하였다.

가냘프다 【형】 ① (몸체가) 호리호리하고 약하다. ㉡ 가냘픈 몸매. ② (소리가) 가늘고 약하다. ㉡ 가냘픈 목소리. ◇가늘다.

◇가늘다 【형】 ① 일정한 길이를 가지면서 둘레가 작거나 굵지 않다. ㉡ 가는 바늘. 가는 실. ② (소리의) 울리는 힘이 약하다. ㉡ 목소리가 ~.

가녁 【명】 가장자리나 여가리. ×가넉.

가넉 →가녁.

가늌 →가늌.

가느다라니 【부】 매우 가늘게. ㉡ ~ 들려오는 신음소리. ×가느다란히.

가느다란히 →가느다라니.

가느스럼하다 →가느스름하다.

가느스럼히 →가느스름히.

가느스름하다 【형】 좀 가늘다. ㉡ 눈을 가느스름하게 뜨다. ×가느스럼하다.

가느스름히 【부】 좀 가늘게. ×가느스럼히.

가느비 【명】 발이 가늘게 내리는 비. ◇가랑비. 는개비. 안개비.

◇가랑비 【명】 매우 가늘게 내리는 비.

◇는개비 【명】 이슬비보다 가늘고 안개비보다는 좀 굵은 가느비.

◇안개비 【명】 는개비보다 더 가늘어서 안개처럼 보이는 가장 가

늘게 내리는 비.
가는채 【명】 가는 울로 촘촘히 짠 채불을 매운 채. ×가는채. 송채.
가는채 → 가는채.
가늘다 【형】 ⇒ 가날프다.
가늠 【명】 어떤 목표나 기준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헤아려보는 것 또는 그 헤아리는 기준. || ~을 알맞게 하다. ~하다【동】 ×가늠.
가내부업 【명】 가내에서 하는 수 공로동과 부업생산. ×가정부업.
가내수공업 【명】 가내수공업경제. 《가내공업》이라고도 한다. ×가정공업.
가다르 → 카타르.
가다리무우 → 가랑무우.
가달박 【명】 ① 잘 굳지 않아 우그러든 쪽박. ② 나무를 파서 만든 자루가 달린 바가지. ◇ 자루바가지.
 ◇ **자루바가지** 【명】 손잡이자루가 달린 바가지.
가도 → 가두.
가도국 → 가두국.
가도판사처 → 가두판사처.
가동작 → 기만동작.
가두 【명】 ① (도시의) 거리. ② 주민들이 살고있는 주택지구. ×가도.
가두국 【명】 가두와 광장에서 출연하기에 적합한 국. ×가도국.
가두다 【동】 자유를 구속하여 일

정한 범위안에 넣어두다. || 닭을 ~. ×간우다.
가두판사처 【명】 시정부의 파출기관. ×가도판사처.
가둑나무 【명】 《참나무나 졸참나무, 떡갈나무》같은것을 두루 이르는 말. ◇ 졸참나무.
 ◇ **졸참나무** 【명】 낙엽교목의 한 가지.
가둑잎 【명】 가둑나무의 잎. ◇ 가랑잎.
 ◇ **가랑잎** 【명】 ① 활엽수에서 떨어진 마른 잎. ② 가을에 떨어진 다음에도 떨어지지 않고 더러나무가지에 붙어있는 마른 잎.
가둑각지 → 양감질.
가드라부치다 → 가드라붙이다.
가드라붙이다 【동】 땀땀하게 되게 오그라붙이다. || 팔다리를 ~. ×가드라부치다.
가득가득히 【부】 여럿이 다 가득하거나 매우 가득하게. || 쌀을 독마다 ~ 채우다. ×가득가득이.
가득가득이 → 가득가득히.
가득히 【부】 ① (어떤 범위)에 분량이나 수요가 한도에 차게. || 광주리마다 사과배가 ~ 차다. ②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게. | 매대에는 여러가지 옷들이 ~ 진열되었다. ③ 공간에 널리 퍼져 있게. ④ 더할수 없이 많게. || 산더미처럼 ~ 쌓인 수박. ×가득이.

가득이 →가득히.

가대기 【명】 발갈이기구의 한가지.

보습날우에 벼은 없으나 보습뒤에 분살이 달렸다. ◇쟁기.

◇쟁기 【명】 ① 주로 농사일에 쓰이는 도구를 통털어 이르는 말.

② 《보습》을 달리 이르는 말. ③ 《도구》를 달리 이르는 말. ④ 《무기》를 달리 이르는 말.

가라앉다 【동】 ① (물이나 그밖의 액체에 떠있지 않고) 밑바닥으로 내려앉다. || 배가 ~. ② (액체속에 섞여있는 물질이) 아래쪽으로 내려앉다. || 물깁치가 ~. ◇잠기다.

◇잠기다 【동】 물속에 있게 되다. || 물에 손이 ~. 발이 물에 ~.

가라앉다 →갈아앉다.

가락나무 →떡갈나무.

가락무우 →가랑무우.

가락조개 →가막조개.

가락토리 【명】 (물레로 실을 켤 때) 물레가락의 두 고동사이에 끼우는 대통이나 또는 것처럼 된 물건. ×가락통.

가락통 →가락토리.

가랴다 →가렵다.

가랴치기하다 →후무리다.

가랑가랑하다 【형】 ① 액체가 많이 담기거나 피어서 거의 넘칠듯하다. || 눈에 눈물이 ~. ② 물 같은 것을 많이 먹어서 배속에 피여있는 듯한 느낌이 있다. ③ 국물 같은것

이 건데기는 매우 적고 국물이 많아서 후렁후렁하다. ◇가랑가랑하다.

◇가랑가랑하다 【형】 얼굴이나 몸이 여윈듯하면서도 탄탄하고 부드럽다. || 가랑가랑한 몸집.

가랑나무 →떡갈나무.

가랑눈 【명】 매우 잘게 내리는 눈. || ~과 함박눈. ◇좁쌀눈. 싸락눈.

◇좁쌀눈 【명】 《아주 작은 눈 또는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을 비겨 이르는 말.

◇싸락눈 【명】 비방울이 내리다가 갑자기 찬바람을 만나 얼어서 떨어지는 싸래기 같은 눈.

가랑무우 【명】 뿌리가 제대로 굵게 자라지 못하고 두세가다리로 갈라진 무우. ×가다리무우. 가락무우.

가랑비 【명】 ① ⇒가는 비. ② ×갈그랑비.

가랑이 【명】 서캐에서 갓 깨어난 새끼이. ◇가랭이.

◇가랭이 【명】 ① 원뿔의 아래쪽이 두가닥 또는 그 이상으로 갈라진 부분. || 무우~. ② (바지의) 다리가 들어가게 된 부분. || 바지~.

가랑잎 【명】 ⇒가득잎.

가랑가랑하다 【형】 ⇒가랑가랑하다.

가련하다 【형】 가없고 불쌍하다.

|| 어머니를 여윈 가련한 어린애.

◇가석하다. 가없다.

◇가석하다 【형】 애뜻하게 아깝다. || 가석하게 희생되다.

◇가없다 【형】 애뜻하게 불쌍하다 || 가없는 사정.

가열처절하다 【형】 (싸움) 이루 말할수 없게 몹시 심하고 맹렬하다. || 가열처절한 전투. ×가열처절하다.

가렬하다 【형】 (주로 싸움, 경기 등이) 몹시 세차고 맹렬하다. || 가렬한 조국해방전쟁. ◇맹렬하다. 치렬하다.

◇맹렬하다 【형】 (기세가) 몹시 사납고 세차다. || 맹렬한 공격을 들이대다.

◇치렬하다 【형】 (기세가) 불길처럼 세차다. || 론쟁이 ~.

가렴잡세 【명】 가혹하게 짜내는 여러가지 명목의 세금. ×가염잡세.

가렵다 【형】 몸을 긁고싶은 느낌이 있다. || 목욕한지 너무 오래서 몸이 ~. ◇무렵다. ×가랍다.

◇무렵다 【형】 무엇에 물린 자리가 그날그날하고 가렵다. || 모기에게 물린 자리가 ~.

가로 【명】 좌우편이 되는 방향. || ~와 세로. ×가르.

가로글씨 【명】 가로 쓴 글씨. ×가르글씨.

가로놓다 【동】 가로 또는 옆으로 놓다. || 걸상을 문가에 ~. ×가르놓다.

가로놓이다 【동】 가로 또는 옆으로 놓이다. || 창가에 가로놓인 책상. ×가르놓이다.

가로눕다 【동】 가로 또는 옆쪽으로 눕다. || 방가운데 ~. ×가르눕다.

가로눕히다 【동】 가로 또는 옆쪽으로 눕히다. || 환자를 방에 ~. ×가르눕히다.

가로다지 【명】 ① (무엇에) 가로지른 물건. ② 가로로 된 방향. || ~로 신다. ◇가로달이.

◇가로달이 【명】 가로 여닫게 된 창이나 문. || ~문.

가로달이 【명】 ① ⇒가로다지. ② ×가르다지. 가르달이.

가로대 →가로되.

가로되 【동】 주로 남의 말을 인용할 때 《말하되》, 《말하기를》의 뜻을 옛날투로 이르는 말. || 공자 ~. ×가로대. 가래대.

가로막다 【동】 가로질러서 막다. || 길을 ~. ×가르막다.

가로막히다 【동】 가로질리어 막히다. || 길이 ~. ×가르막히다.

가로보다 【동】 가로방향으로 훑어보거나 보아나가다. || 글을 가로보게 쓰다. ×가르보다.

가로서다 【동】 ① 가로방향으로

서다. ㉥ 가로서서 막다. ㉦ 가로줄로 서다. ✕ 가르서다.

가로세우다 【동】 ㉧ 가로방향으로 세우다. ㉨ 가로줄로 세우다. ✕ 가로세우다.

가로지르다 【동】 가로 건너지르다. ㉩ 빗장을 ~. ✕ 가로질르다. 가르지르다.

가로질르다 → 가로지르다.

가로채다 【동】 ㉪ 옆으로 탁 쳐서 빼앗다. ㉫ 남의것을 부당한 방법으로 빼앗다. ㉬ 국가재산을 ~. ㉭ 남이 말하는 도중에 불쑥 참견하여 상대방이 말을 계속하지 못하게 하다. ㉮ 남의 말을 ~. ✕ 가르채다.

가로타다 【동】 몸을 모로 하고 타다. ㉯ 소를 ~. ✕ 가르타다.

가로퍼지다 【동】 ㉰ 옆으로 자라거나 옆으로 커지다. ㉱ 오이냉쿨이 ~. ㉲ (몹시가) 몹시 살지여 통통해지다. ㉳ 가로퍼진 몸. ◇ 가로빼지다. ✕ 가르퍼지다.

◇ **가로빼지다** 【동】 (물건이) 옆쪽으로 빼지다. ㉴ 가로빼진 자루.

가로빼지다 【동】 ⇒ 가로퍼지다.

가로쓰다 【동】 가로방향으로 쓰다. ✕ 가르쓰다.

가로쓰다 【동】 글줄을 가로 써나간다. ㉵ 가로쓴 글씨. ✕ 가르쓰다.

가로읽다 【동】 가로썬여진 글줄을 읽어나가다. ✕ 가르읽다.

가루부치 → 가루불이.

가루불이 【명】 ㉶ 《음식물의 재료가 되는 갖가지 가루》를 통털어 이르는 말. ㉷ 《가루로 만든 음식물》을 통털어 이르는 말. ✕ 가루부치.

가루소금 【명】 가루처럼 보드라운 소금. ✕ 분염.

가루탄보이라 → 미분탄보이라.

가르 → 가로

가르글씨 → 가로글씨.

가르놓다 → 가로놓다.

가르놓이다 → 가로놓이다.

가르눅다 → 가로눅다.

가르눅히다 → 가로눅히다.

가르다 【동】 쪼개거나 나누어 따로따로 되게 하다. ㉸ 사과를 세뿔으로 ~. ◇ 가리다¹.

◇ **가리다**¹ 【동】 (여럿가운데서) 일정한것을 따로 골라내다. ㉹ 쌀에서 돌을 ~.

가르다지 → 가로달이.

가르달이 → 가로달이.

가르마 → 가리마.

가르막다 → 가로막다.

가르막히다 → 가로막히다.

가르보기 → 사팔뜨기.

가르보다 → 가로보다.

가르서다 → 가로서다.

가르세우다 → 가로세우다.

가르지르다 → 가로지르다.

가르쳐주다 【동】 ㉺ 알려주어 깨닫게 해주다. ㉻ 글을 ~. ㉼ 읊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밝혀주고 일
깨워준다. ×가르케준다.

가르치다 【동】 알려주어 깨닫게 하
다. ॥ 글을 ~. ◇가리키다. ×가르
키다.

◇**가리키다** 【동】 손가락으로 지
적하다. ॥ 창문을 ~. 달을 ~.

가르쳐다 →가로쳐다.

가르키다 →가르치다.

가르케준다 →가르쳐준다.

가르타다 →가로타다.

가르퍼지다 →가로퍼지다.

가르쏘다 →가로쏘다.

가르쓰다 →가로쓰다.

가르웁다 →가로웁다.

가름길 →갈림길.

가름마 →가리마.

가름웃 →갈음웃.

가리 →갈비.

가리구이 →갈비구이.

가리국 →갈비국.

가리다¹ 【동】 ⇒가르다.

가리다² 【동】 보이거나 통하지 못
하게 사이에 물건을 놓거나 세우거
나 드리우거나 하여 막다. ॥ 양산
으로 벌을 ~. ◇가리우다.

◇**가리우다** 【동】 보이거나 통하
지 못하게 사이에 물건이 놓이거나
세우거나 드리우거나 하여 막히다.
॥ 문발이 드리워 벌이 ~.

가리대 →갈비대.

가리마 【명】 머리털을 양쪽으로 갈

라붙일 때 생기는 골. ॥ ~를 내
다. ×가르마. 가름마.

가리뿔음 →갈비뿔음.

가리키다 【동】 ⇒가르치다.

가리탕 →갈비탕.

가리뺨 →갈비뺨.

가리짚 →갈비짚.

가리우다 【동】 ⇒가리다².

가림웃 →갈음웃.

가래 【명】 가래나무의 열매. 길동근
데 두개의 쪽으로 갈라졌고 속살은
두껍고 땅땅한 겹질에 싸여있다. ◇
가래툰.

◇**가래툰** 【명】 아래배의 옆과
허벅다리사이의 오목하게 된 곳의
림파선이 부어서 아프게 된 멍을.

가래대 →가로되.

가래춤 →가래침.

가래침 【명】 가래가 섞인 침. ॥ ~
을 뱉다. ×가래춤.

가래툰 【명】 ⇒가래.

가랭질 →갈겹질.

가랭이 【명】 ⇒가랑이.

가마¹ 【명】 술의 한가지. |~가 많
으면 모든것이 헤프다. ×가매¹.

가마² 【명】 사람의 머리카나 일부
동물의 대가리에 털이 소용돌이
모양으로 둘러난 부분. ॥ 쌍~. ×
가매².

가마³ 【명】 조그마한 집모양으로
만들어 그안에 사람이 들어앉고
앞뒤에서 뿔뿔에 걸어매게 된 탈

것. ॥ ~를 타다. ×가매³.
가마굽 【명】 가마솔의 운두를 이
 룬 굽. ×가매굽.
가마귀 →까마귀.
가마귀부리 →접조개.
가마니 【명】 난알, 소금, 비료 같
 은것을 넣도록 벼짚으로 짜서 만
 든 용기. ॥ ~를 짜다. ×가마스.
가마두께 →가마뚜껑.
가마둑 【명】 가마가 걸려있는 부
 뚜막이나 그 가까이. ॥ 따뜻한 ~.
 ◇부뚜막. ×가매둑.
 ◇부뚜막 【명】 부엌의 솥을 걸
 어놓은 부분 또는 그 언저리. ॥ ~
 에 물매를 놓다.
가마무트름하다 【형】 (얼굴이) 가
 무스름하고 좀 투박하다. | 그는 몸
 집이 실팍하고 얼굴이 가마무트름
 하게 생겨서 껍 투박스러워보였다.
 ×감아무트름하다.
가마반드르하다 【형】 가맏고 반드
 르하다. ॥ 가마반드르한 책상. ×감
 아반드르하다.
가마부치 →가마불이.
가마불이 【명】 《가마, 솥 같은것》
 을 통털어 이르는 말. ×가마부치.
가마솔 【명】 솥의 한가지. ×가매
 솔.
가마스 →가마니.
가마잡잡하다 →가무잡잡하다.
가마칙칙하다 →가무칙칙하다.
가마뚜껑 【명】 가마를 덮는 뚜껑.

×가마두께. 가매떡개. 가매뚜껑.
가마아득하다 【형】 (시간이나 공간
 이) 아주 오래거나 멀어서 아득하
 다. ॥ 가마아득한 옛날. ×감아아득
 하다.
가마아득히 【부】 (시간이나 공간
 이) 아주 오래거나 멀어서 아득하
 게. ×가마아득이.
가마아득이 →가마아득히.
가마오지 →가마우지.
가마우지 【명】 《갯가마우지와 바다
 가마우지》를 통털어 이르는 말. ×
 가마오지.
가막가지 →까막가지.
가막조개 【명】 민물에서 사는 조
 개의 한가지. ×가락조개. 제비조
 개.
가만 【부】 아무 대책도 취하지 않
 고 그냥 그대로. ॥ ~ 내버려두다.
 ◇그만.
 ◇그만 【부】 (더하거나 계속하
 지 않고) 그 정도까지만. | 인젠 ~
 일하고 좀 쉽시다.
가만가만히 【부】 매우 가만히. ॥
 ~ 다가왔다. ×가만가만이.
가만가만이 →가만가만히.
가만두다 【동】 건드리거나 상관하
 지 않고 그대로 두다. ॥ 집안에 물
 건들을 다치지 않고 ~. ◇그만두
 다.
 ◇그만두다 【동】 하던것을 그치
 고 하지 않다. ॥ 운동을 ~.